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눈은 인간의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눈을 통해 신체 건강을 알 수도 있고, 마음의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은 눈을 통해 상대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홍채 인식을 보안에 적용하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홍채를 통해 전생을 읽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눈을 통해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나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도 한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에는 꿀물이 똑똑 떨어진다 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하다고도 한다. 애써 눈을 피하는 사람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은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탐내는 물건을 보면 눈에서 독(毒)이 나와 눈독을 들이기도 하

청안(靑眼)과 백안(白眼)

고, 상대방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며 눈에 불을 살이 움직여 눈살이 찌푸려지거나, 더하면 눈에서 총이 발사되어 눈총을 주기도 한다. 눈은 독이 되기도 하고 총이 되기도 하여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는 인간의 기관이다.

죽림칠현(竹林七賢) 중 한 사람인 완적(阮籍)은 눈빛으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완적은 속세를 피해 산림으로 들어가 권력과 단절된 삶을 선택한 지식인이었기에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일단 속물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흰 눈동자로 상대방을 보았다. 일명 백안시(白眼視)의 시선법이다. 마주보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동공은 다른 곳에 있고, 흰(白) 눈자위(眼)로 상대방을 보는 시선법이다. 백안시는 앞에 있는 사람을 유령 취급하고 완전 무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무시(無視)당하는 것이다. 시선(視)을 주지 않기(無)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명품으로 치장하기도 하고, 비싼 차를 타며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상대방의 시선이 나를 보아 주기를 바라고,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인정 욕구이다.

반면 상대방을 존경하거나 인정할 때는 파란 눈으로

상대방을 보았다고 한다. 일명 청안시(靑眼視)의 시선법이다. 파랗게(靑) 빛나는 눈동자(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호의를 표시하는 눈빛으로 가장 친근하게 대하는 태도이다.

백안시라는 말은 참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꿈은 사람이 의롭지 못한 이익과 자리를 보면 백안시하여 눈길 주지 않을 때는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이 누구든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깔보고 무시하여 백안시하는 것은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눈빛을 곱게 하고 상대방을 바라봐 주는 것만 해도 참으로 큰 보시다. 흰 눈동자를 뒤집으며 무시와 경멸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만난 이웃에게 청안의 눈인사를 건네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백안시당하는 분들을 따뜻한 청안의 눈빛으로 맞이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임이 분명하다.

세상에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큰 나눔이 눈빛과 얼굴빛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노선이 다르다고 서로 얼굴을 찡그리며 흰 눈동자로 백안시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민망하기까지 하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하얀 눈동자를 푸른 눈동자로 전환하여 서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대하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종교칼럼

일본 불교와 카레라이스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특징이다. 그러나 카레라이스의 카레는 강황을 주 재료로 하고 있다. 그리고 커리는 주로 인도식 빵인 ‘난’과 함께 먹지만, 카레라이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애초부터 밥과 한 세트이다.

일본 불교는 마치 카레라이스와도 같다. 일본의 가장 큰 종파라는 정토진종은 오직 ‘나무아미타불’ 만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 또 다른 종파인 일련정종은 ‘나무묘법연화경’, 이 일곱 글자만 외면 만사형통이다. 선종을 내세우는 조동종은 좌선만을 강조한다.

인도의 마살라와 영국의 커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카레라이스로 바꾸어버린 것처럼,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뿌리 깊은 전통신앙인 신도와 불교를 융합하여 일본 특유의 불교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불교를 해체하여 자신들에게 부합되는 것만 취사선택했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는 지계(持戒), 마음을 닦는 선정(禪定), 연기법의 진리를 밝히는 지혜(智慧), 이 세 가지가 한 몸이어서 각자 떨어질 수 없다.

일본에서는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신사의 신들에게 신고한다. 결혼식은 기독교의 교회나 호텔에서 올리지만 장례는 사찰에서 불교식으로 한다. 그래서 일본에는 애초부터 결혼식만 주로 할 용도로 만들어진 교회도 있다고 한다. 훗카이도에 있다는 안도 다다오의 그 유명한 ‘물의 교회’가 이런 경우이다. 또 일본의 부처는 무덤이 세 개라고 한다. 하나는 다니던 사찰에, 또 하나는 고향에, 마지막 하나는 진언종의 총본산이 있는 고야산의 오쿠보인에 있다고 한다.

이런 몇몇 사실들만 보더라도 종교가 일본인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서의 종교라기보다, 으레 치뤄야 하는 통과의례, 그래서 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 한 구석이 찌뻣한 그 무엇이 가깝다.

지난주 일본 불교의 실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본 불교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 둘째 날, 정토진종의 총본산인 니시혼간지(서본원사)를 찾았다. 마침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주지스님(?)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었다. 검정색 승복을 차려 입었지만 삭발을 하지 않은 주지스님은 매우 세련된 이웃 종교의 성직자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정장으로 한껏 차려 입은 젊은 학부모들과 오랜 시간동안 한마디 말 없이 미동도 하지 않는 아이들도 한국에서 온 승려인 나의 눈에는 무척 생경하게 다가왔다. 분명 불교의 외형을 띠고 있었지만 불교적이지 않은 묘한 분위기였다. 압도적인 규모의 법당과 경내의 여러 다양한 시설들을 접할 때도 역시 같은 느낌이었다.

일본의 카레라이스도 맛있는 요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다양한 향신료를 배합하는 마살라 본연의 풍미를 카레라이스에서 기대하기는 힘들다. 불교가 인도를 벗어나 세계로 퍼져 나가는 과정은 곧 불교의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교는 시대와 사회에 부합하는 종교로 재탄생했다. 오늘날 불교가 지니는 다양한 얼굴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와 종합의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교의 핵심 정신이다. 일본 불교는 불교가 변화를 꾀할 때 유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말해 주고 있다.

기고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 준공을 축하하며

-진창현 선생을 현창하다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재일교포 사업가

린·비올라·첼로 제작자 콩쿠르’에서 6개 종목 중 5개 종목에서 금메달 수상한 데 이어 1984년 미국 바이올린 제작자협회로부터 무감사(無感謝) 제작자의 특별인정을 받고 마스터 메이커(Master Maker) 칭호를 받은 장인이다.

2017년 정월 민단신문에서 ‘진창현씨의 유품은 고향인 김천시에 기증’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부인 이남이 여사는 ‘연말에 김천시를 방문해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2019년 준공하는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에 그녀를 마련해 영구 보존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14세 중학교 2학년 때 고향을 떠나 간난신고 끝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질녘에 동지로 돌아가듯이, 고향에 비단을 장식하는 실로 경사스러운 일이라 생각했다.

2023년 3월 9일 이남이 여사께서 ‘긴자백점(銀座百点) 2023 No.820’ 책자를 보내왔다. 긴자 하이쿠(俳句)에서 각작으로 뽑힌 이남이 여사의 하이쿠가 실려 있었다. 여사는 ‘하나 또 없네 / 몇 개씩 띄어 주는 / 떡국의 그릇’이라는 사랑의 구절로 절절히 진창현 선생을 추모하였다. 동봉된 서한에는 ‘오래 우정에 감사드립니다. 3월 30일에 기다리던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이 준공 개관합니다. 친구 대표로서 하 선생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니 한 문장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세삼 2001년의 일이 떠오른다. 광주시립미술관 주최 제1회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 ‘빛’전을 축하하기 위

해 손수 제작한 제1 바이올린 ‘광주호’를, 이듬해에는 제2 바이올린 ‘대구호’, 비올라 ‘한라호’, 첼로 ‘백두호’ 등 현악기 4종을 ‘하 선생님과 함께 젊은 청년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용기, 그리고 꿈을 나도 전하고 싶다’며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컬렉션에 기증했기 때문이다.

이후 ‘빛’전은 사라사테가 작곡한 ‘지고이네트바이젠’의 파르티트(사중주) 연주로 개막하였다. ‘예술은 나라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든다. 국가는 예술에 봉사하라’는 그의 신념은 오는 3월 28일 개막하는 제23회 ‘빛’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진창현 선생 사후 1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어, 가곡 ‘봉선화’ ‘황성의 달’ ‘빨간 잠자리’ 등을 연주했다. 또한 같은 해 진창현 선생의 일본 고향인 기소초에 기증된 바이올린 ‘기소호’로 추모 콘서트가 열리는 등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가 한일 두 나라에서 개최됐다.

이남이 여사는 오는 30일 준공 기념으로 유품인 2012년작 바이올린 ‘김천호’를 김천시에 기증하신다고 한다. 덕행의 고향 김천시에서 빛을 받고 한일 양국에서 동양의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울려 퍼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 평화를 연주하고, 행복을 연주하고, 한일 우호를 연주하고 청년들에게 꿈을 연주하며 울려 퍼질 것이다. ‘빛’을 비추면, 그 빛은 빛을 더해 돌아온다. 나는 친구의 명예를 영원히 연주로 축하하고자 한다.

社說

‘전남 방문의 해’ 관광객 1억 명 시대 도약대로

전남도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서울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열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 항우 등 수만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남 방문의 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한 총리는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한 전남도는 연 5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라며 ‘전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친구야 전남 가지”를 외치기도 했다.

사실 올해는 전남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당장 오는 4월 ‘2023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를 필두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제104회 전국제철 등 초대형 이벤트들이 연중 펼쳐

처지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빼어난 자연 경관과 22개 시군의 개성과 매력, 맛깔난 먹거리가 이들 이벤트와 연계될 경우 관광객 1억 명(해외 관광객 300만 명 포함) 유치 목표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이번 서울 페스티벌에서 국내 대표 여행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의 편의점 CU 및 카카오페이와 농수산물 판매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선 7기 이후 교통·숙박·편의 등 기반 시설을 착실히 갖춰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제 관광은 전남의 핵심 산업이자 미래 먹거리가 되고 있다. 전남도가 명실상부한 관광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영 활성화, 거점 관광지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전남도 역시 수도권 주민과 항우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적극 대처로 근절해야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광주시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그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32건의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는 공공기관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현실과 착오·허위 신고에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횟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광주시 공무원 인권 실태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직접 또는 간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공무원이 56.1%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지시’가 23.7%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20.7%) ‘따돌림·차별 대우’(20.5%)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은 영성하고 소극적이기만 하다. 앞선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6.8%는 ‘갑질 이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사후 조치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피해자가 되려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도 25.1%에 달해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15.3%)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전담 인력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다. 광주시 37개 산하기관 중 26개 기관은 갑질 업무 담당 인력이 단 한 명뿐이어서 기관 규모에 맞는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의 직원 괴롭힘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처벌은 인권 교육과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전담 인력 및 신고센터 보강 등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공무원들도 권위적인 공직 문화를 타파하고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퍼펙트 게임’은 꿈을 던진 두 프로야구 선수 최동원과 선동열의 고독하고 치열한 승부를 그린 영화다. 1987년 이들은 연장 15회까지 완투하는 ‘전설의 441구(최동원 209·선동열 232) 무승부’ 경기를 펼쳤다. 언제나 치열했던 두 선수의 맞대결은 1승 1무 1패로 끝내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세상은 이들을 라이벌이라 불렀지만 둘은 라이벌 의식 없이 매우 친하게 지냈다. ‘국보 투수’ 선동열에게 최동원은 인생의 멘토이자 영웅이었다. 선배는 가끔씩 후배를 불러내 을 치는 등 장타자로 기량을 사 주기도 하고 반대로 솔 몇 잔을 곁들이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동열아. 몸 관리 잘 해라. 투수에게 피로가 쌓이면 갑자기 가 버리는 수가 있다. 감독 코치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는 몸이 망가질 수 있어.”

광주·전남 야구 올드팬들에게는 ‘선동열의 라이벌’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따로 있다. 고교 시절 쌍벽을 이뤘던 김태업이다. 고교 야구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때 선동열은 광주주고, 김태업은 광주상고 투수였다. 이들은 고3이었던 1980년 5월 1일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 결승에

서 맞붙었다. 당시 광주일보(옛 전남일보)는 ‘서울運 휩쓴 友誼의 한판’이라는 제목으로 8개 지면 중 무려 3개 면에 대서 특필했다. 광주주고는 차동철과 선동열이 번갈아가며 마운드에 올랐지만, 광주상고 김태업은 앞선 세 경기에서 완투를 해 결승전에서는 제 역할을 못했다.

김태업은 중학상 때 무등경기장 담장을 넘긴 이순철이 매우 친하게 지냈다. 그는 선동열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타자로는 봉황기에서 세 경기 연속 홈런을 치는 등 장타자로 기량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프로야구 해대에 입단해서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1986년 군 입대를 계기로 야구를 그만뒀다. 2012년 모교인 강진북중등학교 야구 감독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야구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지난날 오랜 지병 끝에 타계했다. 비보가 전해졌다. 중·고대학까지 함께 다녔던 이순철이 부러워할 만큼 팬들의 뜨거운 인기와 관심을 모았던 그의 재능은 너무 빨리 식어 버렸다. 야구 인생. 이제 막 5회를 넘겼을 뿐인데.

/유재관 편집담당1국장 jkyou@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실장 <b>程厚植</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42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